

시나가와의 연혁과 일본

1_00_00



이루키바시 유적의 패층(貝層)

이루키바시 유적은 시나가와구 오사키에 있으며, 약 7,000~5,500 년 전 조몬 시대※ 전기의 유적입니다. 당시에는 기후가 온난하여,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습니다. 패층에는 대합 · 바지락 · 참굴 · 꼬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※조몬 시대: 약 15,700 년 전 년경부터 시작된 시대로, 주로 수렵 · 채취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. 이 시기에 사용된 토기에는 새끼줄 모양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조몬(繩文: 승문) 시대라고 합니다.

1_00_01



뎨돌도끼(打製石斧)

조몬 시대 전기(약 7,000~5,500 년 전)

1989년 이루키바시 유적 출토
뎨돌도끼는 돌을 깨서 도끼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.

1_00_02



간돌도끼(磨製石斧)

조몬 시대 전기(약 7,000~5,500 년 전)

1989년 이루키바시 유적 출토
간돌도끼는 돌을 갈아서 도끼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.

1_00_03



깊은바리토기(深鉢形土器)

조몬 시대 전기(약 7,000~5,500 년 전)

1990년 이케다야마키타 유적 출토
이케다야마키타 유적은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에 있는 유적입니다. 조몬 시대부터 에도 시대※까지 여러 시대의 유적이 있습니다.

조몬 토기는 불에 굽는 온도가 500°C에서 900°C로 비교적 낮고, 검은 빛을 띤 갈색의 두꺼운 토기입니다.

※에도 시대: 17세기 초기부터 1867년까지 이어진 시대.

에도(지금의 도쿄도)에 막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에도시대라고 불립니다.

<p>1_00_04</p> 	<p>귀때토기(注口土器)</p> <p>조몬 시대 전기(약 7,000~5,500 년 전)</p> <p>1989년 이루키바시 유적 출토 깊은 바리의 주둥이 한군데에 귀때를 붙인 토기입니다. 취사를 하거나 물을 담아 두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</p>
<p>1_00_05</p> 	<p>오모리 패총(貝塚)의 패층(貝層)</p> <p>조몬 시대 말기(약 3,200~2,300 년 전)</p> <p>패층의 표본으로, 1984년 발굴 시에 발견되었습니다. 대합·참굴·꼬막·수랑·큰구슬우렁이 등의 조개껍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</p> <p>패층은 옛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 곳이며, 조개 외에도 깨진 토기 조각, 짐승 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</p>

<p>1_00_06</p> 	<p>간돌칼(복제)</p> <p>야요이 시대※ 후기(약 1 세기부터 3 세기)</p> <p>원사료: 오타구립 향토박물관 소장 1920년대 후반 무렵, 도쿄도 시나가와구 니시오이 5 초메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돌칼은 벼이삭 끝을 잘라 낼 때에 사용합니다.</p> <p>※야요이 시대: 기원전 300 년경에 시작된 시대. 먹을 것을 구하는 수단이 수렵에서 농경으로 옮겨갔습니다.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도쿄도 분쿄구 야요이에서 발견되어서, 야요이 시대라고 불립니다.</p>
<p>1_00_07</p> 	<p>야요이 토기 굽다리 그릇</p> <p>야요이 시대 후기(약 1 세기부터 3 세기)</p> <p>1990년 이케다야마키타 유적 출토 야요이 토기를 굽는 온도는 약 600°C에서 900°C이며 붉은 기를 띤 갈색의 얇은 토기입니다.</p>

1_00_08



(좌) 하지키 사발

고분~나라 시대※ 8세기

1983년 오이카시마 유적 출토

하지키는 고분 시대부터 나라 시대까지 만들어진 토기입니다.

질그릇이며, 야요이 토기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습니다.

(우) 스에키 토기 그릇

고분~나라 시대 8세기

1983년 오이카시마 유적 출토

스에키는 5세기에 한반도의 영향을

받아 만들어지기 시작한 토기로,

녹로를 사용하고 가마에서

구웠습니다. 단단하고 회색이며, 전문

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

※나라~헤이안 시대: 8세기부터

12세기에 걸친 시대. 나라 시대에는

나라(헤이조쿄. 현재의 나라현),

헤이안 시대에는

야마시로노쿠니(헤이안쿄. 현재의

교토부)에 각각의 수도가 있었던

것에 유래합니다.

1_00_09



에바라군의 이름이 있는 기와

나라 시대 8세기

무사시 고쿠분지 절터(고쿠분지시)

출토

현재의 시나가와를 포함한 지역인 에바라군이 무사시 고쿠분지 절※을 세우기 위해 기부한 것입니다.

※고쿠분지 절: 나라 시대에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인식 아래 전국에 세워진 절.

1_00_10



고텐야마 출토 석제 솔도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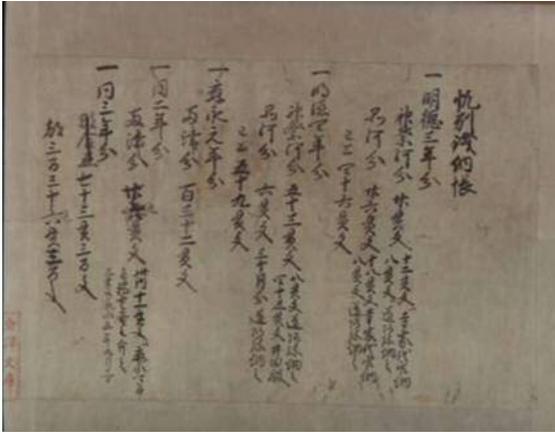
1452 년

호젠지 절 소장, 당관 기탁

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

‘석제 솔도파’란 판자 모양의 편평한 돌에 부처를 상징하는 문자나 부처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,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었습니다. 이 석제 솔도파는 에도 시대 말기, 시나가와 포대(砲臺)를 축조할 당시에 매립 재료인 흙을 채취하려고 ‘고텐야마’라는 언덕을 깎았을 때 발견된 유물 중 하나입니다.

1_00_11



가나가와와 시나가와의 입항세에
관한 기록(복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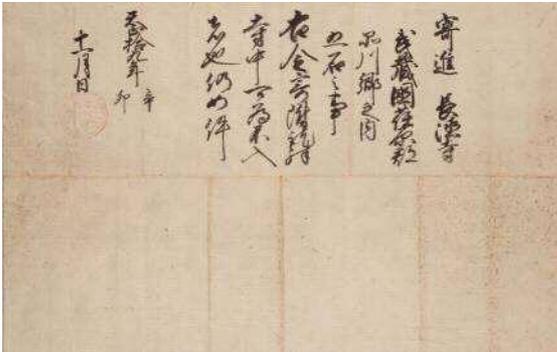
1392 년~1396 년

원사료: 쇼묘지 절 소장, 가나가와
현립 가나자와 문고 보관

국보.

가나가와와 시나가와의 항구로
들어오는 배로부터
호베치센(입항세)을 받은 기록입니다.
입항세는 쇼묘지 절이나 가마쿠라의
사원 수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.

1_00_12



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령

기진장※(복제)

1591년

원사료: 조토쿠지 절 소장, 당관 기탁

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

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토쿠지 절에 토지를 기증했다는 내용이 적힌 주인장. 이에야스가 수도 에도에 입성한 이듬해인 1590년에 발행되었습니다.

※사령 기진장: 사원에 토지를 기부할 때에 사용된 문서. 역대의 장군들은 이에야스가 낸 사령 기진장을 본받아 주인장(도장이 찍힌 공적 문서)을 내어 사찰을 보호했습니다.

<p>1_00_13</p> 	<p>고찰(高札)</p> <p>1770 년</p> <p>고찰이란, 법령 등을 적은 나무 팻말을 말합니다. 충의와 효행을 장려하는 것, 기독교를 금지하는 것, 방화를 금지하는 것, 독약 매매를 금지하는 것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</p>
<p>1_00_14</p> 	<p>고찰장 모형</p> <p>고찰장은 고찰을 내걸어 두는 장소입니다. 한 칸 더 높게 흙을 쌓아 올려, 방을 만질 수 없게 울타리를 둘러쳤습니다.</p>
<p>1_00_15</p> 	<p>고텐야마의 꽃놀이</p> <p>에도 시대에 벚꽃 명소로 정비되었던 고텐야마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.</p>

1_00_16



시나가와 제 6 포대 모형

에도 막부 말기에 막부가 외국 선박의 에도만(灣) 내항에 대비하여 시나가와 앞바다에 만든 포대인 시나가와 포대 중 제 6 포대를 복원한 모형입니다.